

제2절 연구 수행 결과

조생종인 ‘썸머킹’ 품종은 만개 후 약 99~107일에 수확이 가능하였다. 생물계절 양상을 보면 문경의 평균 발아기가 3월 20일로 김천(대덕면)의 평균 발아기 3월 22일 보다 2일 정도 빨랐고, 만개기도 문경이 김천(대덕면) 보다 2일 정도 빨랐다. 조사지역 ‘썸머킹’의 평균 성숙기는 8월 5일로 비슷하였다(표 1).

표 1. 조생 시험품종 개화 생육 특성

품종명	지역	발아기 (월/일)	개화기 (월/일)	만개기 (월/일)	성숙기 (월/일)	만개후 일수	육성시 발표숙기	
썸머킹	문경 마성면	'14	3/21	4/24	4/26	8/2	99	
		'15	3/21	4/24	4/26	8/10	107	
		'16	3/18	4/22	4/23	8/3	103	
		평균	3/20	4/23	4/25	8/5	103	
	김천 대덕면	'14	3/24	4/24	4/28	8/7	102	8상
		'15	3/22	4/22	4/28	8/11	106	
		'16	3/20	4/19	4/25	8/2	100	
		평균	3/22	4/21	4/27	8/6	103	
평균		3/21	4/22	4/26	8/5	103		

중생종인 ‘그린볼’의 지역별 생물계절 양상을 살펴보면 문경, 김천(대덕면)의 평균 발아기가 3월 19일에서 3월 20일로 가장 빨랐고 봉화, 포항이 4월 3일로 가장 늦었으며 그 차이는 14일 정도였다. 조사지역의 평균 만개기는 4월 27일이었고 문경은 4월 24일로 조사지역 중 가장 빨랐다. 평균 성숙기는 김천(감천면)이 8월 25일로 가장 빨랐고 김천(중산면)이 9월 13일로 가장 늦었으며 그 차이는 18일 정도였으며, 만개 후 성숙기까지의 일수는 약 121~139일이었다(표 2).